

##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도덕적 의사결정의 개인차: 타인 조망수용과 인지유형\*

신 홍 임†

영남대학교

최근 도덕심리학에서는 다수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공리주의적 결정과 소수의 희생일지라도 무고한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의무론적 결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위해의 상황에서 인지적/정서적 측면의 개인차가 개인들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끼치는 영향을 비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글을 제시하고, 주인공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도를 찬성/반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의 타인조망수용과 타인에 대한 공감적 염려를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비개인적 상황에서 모두 공리주의적 결정을 선호하는 집단에서 타인조망수용의 경향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윤리적 의사결정과 인지유형(어휘적 표상 vs. 시각적 심상)의 개인차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시각적 표상경향이 높을수록 공리주의적 결정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정서와 인지가 개입하는 과정을 토론하였고,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의 방향에 대해 다루었다.

주제어 : 공리주의적 관점, 의무론적 관점, 타인 조망수용, 인지유형

\* 이 논문(저서)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A8019388).

논문에 대해 중요한 도움말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신홍임,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종합강의동 418호 / E-mail: shin7038@naver.com

Susan Sontag(2003)은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개입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보게 되는 많은 사진들이 점점 더 잔혹하고 자극적이 되는 이유를 우리가 모두 둔감해지고,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능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타인의 고통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감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며, 나의 이득이 타인의 고통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타인을 ‘그들’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주장은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의 정서와 사고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논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위해행동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정서와 사고의 개인차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도덕심리학(Haidt, 2001; Greene, Sommerville, Nystrom, Darley & Cohen, 2001; Prinz, 2006; Greene, 2015)에서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윤리적 갈등상황을 제시하면서 탐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기관사가 기차에 탄 열 명의 승객을 살리기 위해 철로 한 쪽에 있는 한 명의 인부쪽으로 기차의 방향을 돌려도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묻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수의 이득이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공리주의적 입장(utilitarianism)을 지지하기도 하고(예: 열 명의 승객을 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다른 한 편으론 수단이 잘못되었다면 결과도 정당화될 수 없다(예: 한 명의 인부라 하더라도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빼앗을 수 없다)는 의무론적 입장

(deontology)의 손을 들어주기도 한다.

그런데, 왜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공리주의적 판단과 의무론적 판단의 차이가 생기는가? 선행연구들(Bartel, 2008; Conway & Gawronski, 2013; Greene et al., 2001; Greene, Morelli, Lowenberg, Nystrom & Cohen, 2008)에서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상황을 제시하면서 공리주의적 판단과 의무론적 판단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들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도덕판단의 이중처리이론(dual process theories: Greene et al., 2001)에 의하면, 의무론적 입장에서 주로 행동의 내재적 특성이 중요하다면(예: 결과에 상관없이 해를 끼치는 것은 나쁘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주로 행동의 결과에 관심이 향한다(예: 다수의 이득을 위한 것이라면 해를 끼친다고 해도 수용할 만하다). 또한 이중처리이론에서는 의무론적 입장이 정서와, 공리주의적 입장은 사고와 연관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Greene 등(2001)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의무론적 판단을 내리거나, 또는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예: 기차 딜레마에서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을 선로방향으로 밀어서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구함), 뇌의 정서연관부위가 활성화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참가자들에게 정서가 유발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세부적으로 상상하게 하면, 의무론적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증가했다. 반면 Greene 등(2001)에서 연구참가자들에게 피해자와 거리를 두게 하여 자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느끼지 않게 하거나(예: 기차 딜레마에서 스위치를 눌러 한 명의 인부쪽으로 기차의 방향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함),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연구참가자가 공리주의적 판단을 내리면, 뇌의 사고연관부위가 활성화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Greene 등의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가 윤리적 갈등상황과 개인적으로 얼마나 연관성을 느끼는지에 따라 공리주의적/의무론적 결정이 달라졌으며, Waldmann과 Dieterich(2007)에서는 피해자가 전경 또는 배경으로 나타나는지가 공리주의적/의무론적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유사한 갈등상황이라도 다수의 이득이 전경으로 부각되면 공리주의적 결정이 커진 반면, 피해자가 전경으로 부각되면 의무론적 결정이 증가했다. 또한 Moore, Clark와 Kane(2008)에서는 참가자가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자신과 다수의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을 때, 그 행동이 적합하다는 공리주의적 판단을 더 많이 했으며, 의무론적 결정의 경우보다 반응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Moore 등은 정서와 사고가 충돌하는 갈등상황에서는 작업기억의 중앙집행기(executive control)에서 정서를 조절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정서로만 판단하는 경우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이 결과를 해석했다. 이에 비해 Conway와 Gawronski(2013)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사진(예: 동물실험에서 원숭이가 주사를 맞음)을 제시하여 정서를 유발하면, 의무론적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증가했고, 공리주의적 판단보다 반응시간이 더 적게 걸렸다.

요약하면, 이 결과들은 의무론적 판단이 피해자와 개인적인 연관성이 부각되는 갈등상황에서 주로 빠르고 직관적인 정서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비해, 공리주의적 판단은 개인적인 연관성이 인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느리고 심사숙고하는 사고과정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들은 윤리적 갈등상황의 특성에 따라 정서와 사고가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국내 연구들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도덕적 딜레마를 토대로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서 및 인지의 개인차변인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도덕적 딜레마의 연구는 소수의 권리와 다수의 이득에 관한 의사결정이 충돌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작하여 심사숙고하는 인지과정이나 직관적인 정서유발과 연관된 심리적 변인들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외 선행연구들에서 폭넓게 실시되고 있다(예: Cushman & Greene, 2012; Greene et al., 2001; 2008; Koenigs et al., 2007, Moore et al., 2008). 국내에서는 이민우, 설설희와 김학진(2014)이 도덕적 딜레마를 사용하여 공리주의적 결정 혹은 의무론적 결정을 내린 대상에 대해 인상형성의 따뜻함/유능함 차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흥미롭게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비개인적 갈등상황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를 사용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정서와 인지의 개인차변인<sup>1)</sup>을

1) 지금까지 도덕판단의 개인차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도덕발달(예: 정명숙, 2002; 하영희, 김경연, 2003; 김성희, 방희정, 2008)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정서와 인지의 개인차변인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공리주의적/의무론적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이재호와 조궁호(2014)가 개인의 정치성향이 진보/보수인지에 따라 도덕판단기준이 달라짐을 보여주었으며, 정은경(2013)은 개인이 권력감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달라짐을 보고하였다. 한편 공감능력의 개인차에 관해서는 조궁호 등(2002)이 개인의 문화성향과 공감수준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집단중심성향이 높은 개인일수록 개인중심성향이 높은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공리주의적/의무론적 의사결정에서 정서와 연관된 개인차변인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정서의 낮은 활성화가 도덕판단에서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국외의 선행연구들(예: Koenigs, Young, Adolphs, Tranel, Cushman, Hauser & Damasio, 2007; Bartels & Pizarro, 2011)에서는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정서장애가 있거나, 반사회적 인격장애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의 경우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반면 불쾌한 맛이나 더러운 공간을 점화하여 혐오감을 유발하면 의무론적 결정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예: Eskine, Kacinek & Prinz, 2011; Schnall, Haidt, Clore & Jordan, 2008).

또한 정서를 공감수준에서 측정된 선행연구들(Gleichgerrcht & Young, 2013; 문은옥 등, 2013)에서는 공감능력이 윤리적 의사결정이나 반사회적 행동과 연관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공감을 인지적 요소나 정서적 요소의 단일한 측면으로 보지 않고, 서로 구분되는 여러 하위요소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Davis(1983)는 공감이 타인조망수용, 상상력, 공감적 염려와 개인적 고통의 하위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이 중 타인조망수용과 상상력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인지 공감

과 연관되는데 비해, 공감적 염려와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입장에서 불안과 걱정을 느끼는 정서 공감이라고 설명하였다. Gleichgerrcht와 Young(2013)은 공감수준의 개인차가 공리주의적/의무론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자들은 Davis(1983)의 이론을 기반으로 공감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타인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과 타인의 고통/불행에 대해 느끼는 공감적 염려(empathic concern)로 나누어 개인차를 측정한 후, 개인적/비개인적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참가자가 공리주의적/의무론적 의사결정을 내린 비율에 따라 참가자 집단을 구분하여 공감의 차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개인적/비개인적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모두 공리주의적 결정을 선호한 집단의 공감수준은 두 상황에서 모두 의무론적 결정을 선호하거나 또는 개인적 갈등상황에서만 의무론적 결정을 선호한 집단의 공감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이 차이는 공감의 여러 요소 중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적 염려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정서를 느끼는 정도가 공리주의적/의무론적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감적 염려수준이 낮은 개인은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 결과를 해석했다. 국내에서는 문은옥 등(2014)이 공감을 인지공감과 정서공감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품행장애 청소년들이 타인의 표정을 이해하는 인지공감에서는 다른 일반청소년과 차이가 없었지만, 표정을 모방하는 정서공감에서는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기되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 위에 기술한 선행연구를 보았을 때,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은 타인조망수용보다는 낮은 수준의 공감적 염려와 관계가 있었으며

---

개인보다 공감수준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인지공감보다 정서공감에서 더 두드러졌다. 또한 박서연과 박성연(2012)은 개인의 공감초점, 문화성향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타인고통초점의 경향이 높고, 집단주의성향이 높을수록 도움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Gleichgerrcht & Young, 2013), 타인의 표정모방은 인지적 공감보다는 높은 수준의 정서적 공감과 관계가 나타났다(문은옥 등, 2014). 따라서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인지적 공감은 공감적 염려와 같은 정서적 공감과 서로 구분되는 요소임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지적 공감은 윤리적 의사결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지적 공감을 통해 사고과정이 촉진되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이 증가할 것인가? 혹은 인지적 공감이 정서를 활성화시켜 의무론적 의사결정이 증가할 것인가? Davis(1983)는 타인조망수용을 타인의 정서와 행동을 예측하는 인지적 공감으로 정의하면서, 타인조망수용과 다양한 심리적 변인(예: 외로움, 사회불안, 자존감, 정서적 반응성, 정서적 민감성, 지능 등)의 관계를 상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타인조망수용은 외로움이나 사회불안과 같은 사회 부적응과 연관되는 변인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존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 민감성 척도에서는 타인조망수용이 자신을 향한 민감성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던 반면, 타인에 초점을 맞춘 민감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사고가 반드시 공리주의적 의사결정과 연관되지 않고, 오히려 인지적 공감의 내용이 타인을 향한 사고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인지적 변인의 개인차가 정서의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그것이 가능한가? 즉,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는 각 개인마다 다르게 처리되고, 윤리적 의사결정의 차이를 유발하는 정서가 활성화되는지의 문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Moore 등(2008)은 작업기억용량의

개인차가 중앙집행기의 정서조절을 통해 공리주의적 결정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작업기억의 인지유형은 도덕판단의 특정한 입장을 촉진시키는가? 인지유형은 한 개인이 외부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인지적 양식이다(Kozhevnikov, 2007). 선행 연구들에서는 인지유형에 시각적 - 어휘적 표상(Richardson, 1977), 추상적 - 구체적 표상(Messik, 1976), 연속형 - 전체형(Pask, 1972) 등이 있으며, 인지유형의 개인차가 학업적 성취, 문제해결과 갈등관리를 개인의 지능보다 더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시각적 심상으로 표상하는 것은 어휘적으로 표상하는 것에 비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의사결정이 달라질 가능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인지유형의 개인차가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첫 번째 가능성은 구체성의 측면에서다. Paivio(1986)는 이중 부호화이론(dual-coding theory)에서 시각적 이미지(예: 먼지가 묻은 오래된 나무책상 사진)는 어휘(예: 모양과 형태가 다른 여러 책상들을 하나로 범주화하는 책상이라는 단어)보다 더 특수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더 잘 저장되고, 기억되기도 더 쉽다고 설명했다. 또한 Amit, Algom과 Trope(2009)는 심리적 연관성을 많이 느끼는 정보일수록 시각적 이미지의 형태로 저장되고, 심리적 연관성을 적게 느낄수록 정보가 언어의 형태로 저장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현재 친숙한 사물(예: 자동차)과 과거에 친숙했던 사물(예: 인력거)을 범주화하도록 했을 때, 현재 친숙한 사물은 단어보다는 그림으로 제시될 때 시간이 더 적게 걸렸고, 과거에 친숙했던 사물은 그림보다

는 단어로 제시될 때 과제수행속도가 더 빨랐다. 따라서 시각적 이미지가 심리적으로 더 직접적인 연관성을 느끼는 것과 연관된다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공리주의적 결정이 감소하고, 의무론적 결정이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인지유형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두 번째 가능성은 시각적 심상과 정서활성화의 관계를 통해서다. 선행연구들(Holmes & Mathews, 2005; Holmes, Mathews, Mackintosh & Dalgleish, 2008)에서는 시각적 심상이 정서유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Holmes와 Mathews(2005)에서 참가자들은 부정적인 상황(예: 화재가 발생하여 비상구로 급하게 뛰어나는 상황)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떠올려보는 조건에서 단어의 의미에 집중하면서 상황기술문을 단순히 청취하는 조건보다 더 강한 불안을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시각적 심상은 어휘적 표상보다 더 구체적일뿐 아니라 불안같이 일차적인 정서는 즉각적이기 때문에 감각경험을 통한 직관적인 심상에 정보처리가 지연되는 어휘적 표상보다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시각적 이미지는 정서와 연관된 직접적 경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각적 심상이 정서를 촉진시킨다면 작업기억의 정보처리에서 시각적으로 표상하는 경향이 높은 개인들의 경우 의무론적 결정이 증가될 것이다. 또한 어휘적 표상은 시각적 심상보다 정서적 반응이 적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표상하는 경향이 높은 개인들의 경우 의무론적 결정이 더 적어지거나, 또는 공리주의적 결정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지유형(시각적 심상 vs. 언어적 표상)이 윤리적 의

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공감능력과 인지유형의 개인차가 한 개인이 내리는 도덕 판단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두 개의 연구를 통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타인 조망수용과 타인에 대한 공감적 염려는 개인이 공리주의적/의무론적 결정을 선호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둘째, 개인의 인지유형은 공리주의적/의무론적 결정과 관계가 있는가?

##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다양한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공리주의적/의무론적 결정이 타인조망수용과 타인에 대한 공감적 염려의 개인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 방법

### 참가자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대학생 153명(남=56, 평균연령 만 20.4세, 표준편차=3.62)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연구참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았다.

### 연구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참가자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여섯 개의 글(부록 참조)을 한 개씩 읽었

으며, 이 글에 기술된 주인공의 행동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에 대해 응답했다. 이 여섯 개의 글은 Greene 등(2009)을 토대로 선택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했으며, 개인적 또는 비개인적 갈등상황에 관한 것이었다<sup>2)</sup>. 본 연구에서 개인적 갈등상황에 관한 글은 3개였으며, 남은 3개는 비개인적 갈등상황을 기술했다. 개인적 갈등상황의 글은 주인공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기술했으며, 비개인적 갈등상황의 글은 주인공이 스위치조작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장기이식을 하기 위해 병원에 온 건강한 방문객을 해치는 상황에 관한 글은 개인적 갈등상황에 속한다. 반면, 기차에 타고 있는 다수의 승객을 살리기 위해 스위치를 눌러 다른 방향으로 기차를 돌려, 그 쪽에서 일하는 한 명의 인부를 해치는 상황은 비개인적 갈등상황에 속한다. 또한 참가자는 타인의 관점 수용과 타인에 대한 공감적 염려에 대한 질문지에 응답했다. 이 질문지에서는 Davis(1983)의 대인관계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했다. 타인조망수용의 질문지는 총 7개 문항으로, 내적 합치도는 .77이었으며, 공감적 염려에 관한 질문지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내적합치도는 .71이었다. 예를 들어, 타인조망수용에 관해서는 다

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으며, 타인에 대한 공감적 염려에서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불행하다고 생각되어 걱정할 때가 있는지를 질문했다. 참가자들은 타인 조망수용과 타인에 대한 공감적 염려의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에서 평정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성별, 나이 및 종교의 인구학적 변인에 관한 문항에 응답했다.

## 결 과

### 공리주의적 의사결정과 의무론적 의사결정의 개인차

공리주의적/의무론적 의사결정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Gleichgerrcht와 Young(2013)에 따라 참가자가 개인적/비개인적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공리주의적/의무론적 결정을 한 결과를 토대로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타인조망수용과 타인에 대한 공감적 염려의 차이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Greene 등(2001; 2008)과 같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동의는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으로,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반대는 의무론적 의사결정으로 해석했다. 표 1과 같이 참가자가 여섯 개의 개인적/비개인적 갈등상황에 관한 글에서 모두 공리주의적 결정을 내렸다면, ‘공리주의적 집단’에 속하고, 참가자가 여섯 개의 개인적/비개인적 갈등상황에서 모두 의무론적 결정을 내렸다면, ‘의무론적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이에 비해 개인적 갈등상황에서는 더 많이 의무론적 결정을 내리고, 비개인적 갈등상황에서는 공리주의적 결정을 더

2) Greene(2009)에서는 개인적(personal)/비개인적(impersonal) 윤리적 갈등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인적인 윤리적 갈등상황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특정 개인/특정 집단을 향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또는 이러한 위해가 위협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 때에 관한 것이다. 그 외 다른 갈등상황들은 비개인적인 윤리적 갈등상황에 포함된다.

많이 내렸다면, 공리주의적/의무론적 집단으로 ‘다수집단’에 속하며, 개인적 갈등상황에서는 공리주의적 결정을 더 많이 내리고, 비개인적 갈등상황에서는 의무론적 결정을 더 많이 내렸으면, ‘기타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했다<sup>3)</sup>. 선행연구들(Greene 등, 2001; 2008)에 의하면 개인적 갈등상황에서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통해 상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결정보다는 의무론적 결정이 우세하다. 반면, 비개인적 갈등상황에서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가 아닌, 스위치조작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결정이 더 우세하다. 따라서 개인적/비개인적 상황에서 모두 공리주의적 결정을 내린다면, 공리주의적 성향이 강한 개인들이며, 개인적/비개인적 상황에서 모두 의무론적 결정을 내렸다면 의무론적 성향이 뚜렷한 개인들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인적/비개인적 갈등상황과 의사결정에 따라 참가자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참가자들의 49.7%가 개인적/비개인적 갈등상황에 따라 공리주의적/의무론적 결정을 다르게 선호하는 다수집단에 속했으며, 의무론적 결정의 집단이 총 참가자의 29.4%, 공리주의적 결정의 집단이 총 참가자의 20.1%로 나타났다. 이 분포는 Gleichgerrcht와 Young(2013)의 결과와 유사하다<sup>4)</sup>. 참가자집단에 따른 타인조망수용과 타인

에 대한 공감적 염려를 비교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참가자집단에 따른 타인조망수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3,153) = 4.41, p < .05, \eta^2_p = .08$ . 집단평균차이를 Scheffe 검정을 통해 사후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공리주의적 집단은 의무론적 집단보다 타인조망수용이 유의하게 낮았다,  $t(74) = -3.47, p < .01$ . 또한 공리주의적 집단은 다수집단보다 타인조망수용이 유의하게 낮았다,  $t(107) = -2.18, p < .05$ . 그러나 타인에 대한 공감적 염려에서 집단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3,153) = .65, p = .63, \eta^2_p = .01$ . 이 결과는 Gleichgerrcht와 Young(2013)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공리주의적 집단의 공감적 염려수준이 다른 집단들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타인조망수용에서는 집단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비개인적/개인적 갈등상황에 따른 공감의 차이

연구 1에서 참가자에게 제시한 개인적/비개인적 갈등상황에 따라 타인조망수용과 공감적 염려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섯 개의 도덕적 딜레마 중에서 선행연구(Gleichgerrcht & Young, 2013)와 유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두 개의 상황을 선정하여 비교했다. 먼저, 참가자가 스위치조작을 통해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비개인적 갈등상황(예: 스위치를 눌러 기차의 방향을 바꿈)에서는 참가자의 69.4%가 찬성하였고, 참가자의 30.6%가 반대하여, 공리주의적 결정이 우세하였다. 반면, 참가자가 신체적으로 직접 개입하여 타인에

집단이 총 참가자의 15.9%로 나타났다.

3) 기타집단에 속하는 참가자들은 총 참가자 중에 3명이었으며, 이 자료는 통계분석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았다.

4) Gleichgerrcht와 Young(2013)의 연구(N=1339)에서는 참가자들의 45.2%가 개인적/비개인적 갈등상황에 따라 공리주의적/의무론적 결정을 다르게 선호하는 다수집단에 속했으며, 의무론적 결정의 집단이 총 참가자의 37%, 공리주의적 결정의



표 1. 공리주의적/의무론적/다수의 집단의 타인조망수용과 공감적 염려의 변량분석결과

공감 유형	집단			F	$\eta^2$
	공리주의적 (N = 31)	의무론적 (N = 45)	다수 (N = 78)		
타인 조망수용	3.27 (.86) <sub>a</sub>	3.78 (.86) <sub>b</sub>	3.68 (.79) <sub>c</sub>	4.41*	.08
타인에 대한 공감적 염려	2.11 (.85)	2.27 (1.01)	2.28 (.97)	.65	.01

주.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  $p < .05$ , Scheffe의 사후분석결과에 의하면 a, b, c중에서 a의 값만 b, c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대한 위해행동을 하는 개인적 갈등상황(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폭탄위로 던짐)에서는 참가자의 21.7%가 찬성하였고, 참가자의 78.3%가 반대하였다. 따라서 개인적 갈등상황에서는 의무론적 결정이 우세하였다.

비개인적/개인적 갈등상황에서 참가자들의 타인조망수용과 공감적 염려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비개인적 갈등상황에서는 찬성응답자(M = 3.31, SD = .76)가 반대응답자(M = 3.75, SD = .85)보다 타인조망수용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t(155) = -3.21, p < .01$ . 반면 공감적 염려에서는 찬성응답자(M = 2.29, SD = .99)와 반대응답자(M = 2.15, SD = .89)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155) = .88, p = .38$ . 이에 비해 개인적 갈등상황에서는 찬성응답자와 반대응답자가 타인조망수용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t(155) = .71, p = .47$ , 공감적 염려에서도 역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155) = .72, p = .48$ .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리주의적 결정과 의무론적 결정을 내린 참가자들의 공감능력에 있어서의 개인차는 비개인적 갈등상황에서만 나타났다. 한편, 이 결과는 Gleichgerrcht와 Young (2013)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비개인적 갈등상황에서 모두 타

인조망수용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공감적 염려에서만 개인적 갈등상황에서 공리주의적 결정을 내린 참가자들이 의무론적 결정을 내린 참가자들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에 관해서는 논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다.

#### 공리주의적 의사결정과 타인조망수용 및 공감적 염려의 상관관계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이 공감능력의 개인차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했다. 개인적/비개인적 갈등상황을 구분해서 타인조망수용과 공감적 염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인적 갈등상황에서는 공리주의적 결정과 타인조망수용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r = .05, p = .47$ . 반면, 비개인적 갈등상황에서는 공리주의적 결정과 타인조망수용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25, p < .01$ . 따라서 비개인적 갈등상황에서는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의 비율이 높을수록 타인조망수용이 낮았다. 이에 비해 공감적 염려는 개인적 갈등상황이나 비개인적 갈등상황에서 모두 공리주의적 결정과 유의한 상관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개인적 갈등상황:  $r = .05$ ,  $p = .47$ ; 비개인적 갈등상황:  $r = .07$ ,  $p = .38$ ). 한편 타인에 대한 공감적 염려와 타인 조망수용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경향성이 나타났다,  $r = .15$ ,  $p = .06$ . 이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측정된 공감의 두 구성요소, 즉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서로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 논 의

연구 1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공리주의적/의무론적 결정이 타인조망수용과 타인에 대한 공감적 염려의 개인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비개인적 갈등상황에서 모두 공리주의적 결정을 선호한 집단에서 의무론적 결정을 전반적으로 선택했거나, 개인적인 상황에서만 의무론적 결정을 선호한 집단보다 타인조망수용의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비개인적 갈등상황에서 공리주의적 결정의 비율이 높을수록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이 더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이 사고와 연관된 정서적 변인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구 1에서 도출된 결과를 선행

5) Davis(1983)의 대인관계척도에서는 타인조망수용이 공감적 염려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이에 대해 Davis는 타인조망수용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인데 비해, 공감적 염려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란 점에서 구분되지만, 자신보다는 타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타인에 대한 민감성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연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의 수준과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집단과 관계가 나타나는데 비해, Gleichgerrcht와 Young(2013)에서는 공리주의적 집단이 인지적 공감에서 다른 집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서적 공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두 연구가 유사한 연구설계를 기반으로 실시되었음을 생각해볼 때, 본 연구의 결과해석에 한계가 있다. 우선, 생각해볼 것은 본 연구와 Gleichgerrcht와 Young(2013)의 연구에서 표집 크기의 차이점이다. 본 연구에는 153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한데 비해 Gleichgerrcht와 Young(2013)의 연구에는 1339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표집크기로 인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한 정서적 공감능력의 측정에서 효과크기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Gleichgerrcht와 Young(2013)의 연구보다 더 많은 도덕적 딜레마를 읽었다. Cushman과 Greene(2012)이 제시한 것처럼 도덕적 딜레마가 정서과정보다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대안들에 대한 인지과정을 분석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했음을 생각해볼 때,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인지 공감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연구절차가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연구 1에서는 타인조망수용의 개인차가 비개인적 갈등상황에서 공리주의적/의무론적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Gleichgerrcht와 Young(201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다. 여기에서는 타인조망수용에서는 개인적/비개인적 갈등상황에서 모두 윤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적 염려에서는 개인적 갈등상황에서만 공리주의적/의무

론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연구 1에서 왜 개인적 갈등상황에서 공감적 염려의 개인차가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해 Einolf(2008)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측정한 공감적 염려는 현재의 시점에서 함께 존재하지 않는 타인을 위한 사전에 계획된, 공식적인 단체를 통한 도움행동(예: 헌혈, 아프리카 아동난민 돕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며, 현실의 상황에서 심리적인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타인에 대한 즉흥적인 도움행동(예: 무거운 짐 들어주기, 대중교통에서 자리양보하기)만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연구 1에서 참가자들이 개인적 갈등상황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를 읽었을 때, 가상의 상황에 대해 심리적인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적 염려의 개인차가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연구 2

연구 2의 목적은 인지유형(언어적 표상 vs. 시각적 심상)과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의 비율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어휘로 표상할수록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이 증가하고, 시각적 이미지로 표상할수록 의무론적 결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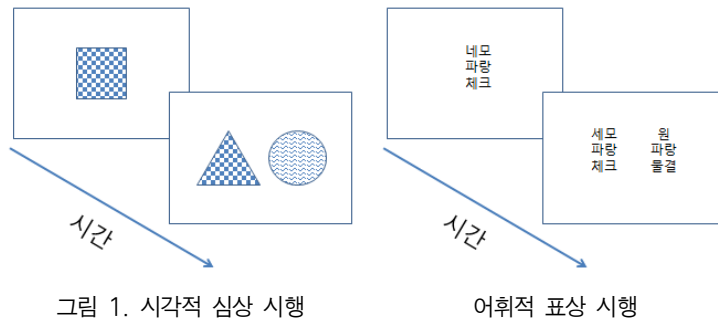
## 방법

### 참가자

4년제 대학교의 대학생 30명(남=13, 평균연령 만 22.43세, 표준편차=2.62)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연구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오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 연구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참가자와 연구진행자 간에 일대일로 진행되었으며, 자극은 e-prime 소프트웨어(Schneider, Eschmann & Zuccolotto, 2002)를 통해 컴퓨터화면에서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우선 작업기억의 인지유형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과제는 Kraemer, Rosenberg 및 Thomson-Schill(2009)을 참조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이 이미지



또는 단어로 도형이 제시되었다. 각 시행에서는 한 개의 도형이 컴퓨터화면에 제시된 후, 두 번째 후속화면에서 이전에 보았던 도형과 비슷한 것을 고르도록 했다. 도형은 화면중앙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제시되었다. 참가자에게는 이전에 보았던 도형과 전체 모양, 색깔 및 내부 질감의 측면에서 더 비슷한 것을 컴퓨터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으로 표시된 버튼을 눌러서 응답하도록 지시하였다. 각 도형은 3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속성이 비슷하면 더 비슷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시행은 총 43시행이었으며, 이 중 3개 시행은 연습시행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 절반은 도형이 이미지로, 다른 절반은 단어로 제시되었다. 왼쪽과 오른쪽의 도형 중 정답이 되는 도형은 왼쪽/오른쪽에 따라 서로 균등하게 배치되었다. 각 시행에서 참가자가 기억해야 하는 도형은 1,000msec동안 제시되었으며, 이후 계속되는 후속화면에서 참가자가 비슷한 도형을 고를 때는 제한시간이 없었다.

인지유형과제가 종료되면, 참가자는 도덕판단과제를 수행했다. 연구 2에서는 Greene 등(2009)을 토대로 개인적인 윤리적 갈등상황에 관한 글만 6개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참가자에게는 윤리적 갈등상황이 컴퓨터화면에 글로써 하나씩 제시되었으며, 주인공의 행동이 적절한 정도를 7점 척도에 따라 평정하도록 지시했다(1: 전혀 적절하지 않다, 7: 아주 적절하다). 참가자들의 응답시간에는 제한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에게 정치성향(진보/보수) 및 종교여부를 질문했으며, 참가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실험이 종료되었다.

## 결 과

### 인지유형의 개인차와 공리주의적 의사결정

연구 2에서는 인지유형과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참가자 개인별로 인지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Kraemer등(2009)에 따라 도형과제에서 시각적 심상/어휘적 표상시행의 평균 정확도 차이를 산출하였다. 시각적 심상과제의 정확도는 도형이 이미지로 제시되었던 20시행 중에서 참가자가 정반응을 한 시행의 비율이며, 어휘적 표상과제의 정확도는 도형이 글자로 제시된 20시행 중에서 참가자가 정반응을 한 시행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참가자가 수행한 시각적 심상과제의 정확도가 어휘적 표상과제의 정확도보다 더 클수록 시각적 심상의 인지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각적 심상과제의 정확도는 평균 .90(SD=.06), 어휘적 표상과제의 정확도는 평균 .91(SD=.10)이었다. 시각적 심상과제를 어휘적 표상보다 더 잘한 참가자는 총 30명중 8명이었으며, 어휘적 표상과제를 더 잘 한 참가자는 8명이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두 과제의 평균 정확도에서 동일했다. 시각적 심상과제(M: 1203msec, SD: 330msec)에서는 어휘표상과제(M: 2615msec, SD: 804msec)보다 반응시간이 전반적으로 더 적게 걸렸다. 또한 여섯 개의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참가자들이 주인공 행동의 적절성을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 결과의 평균을 산출했다. 주인공의 행동을 적절하다고 응답한 정도가 높을수록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한 정도가 낮을수록 의무론적 의사결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인지유형과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시각적 심상과제에서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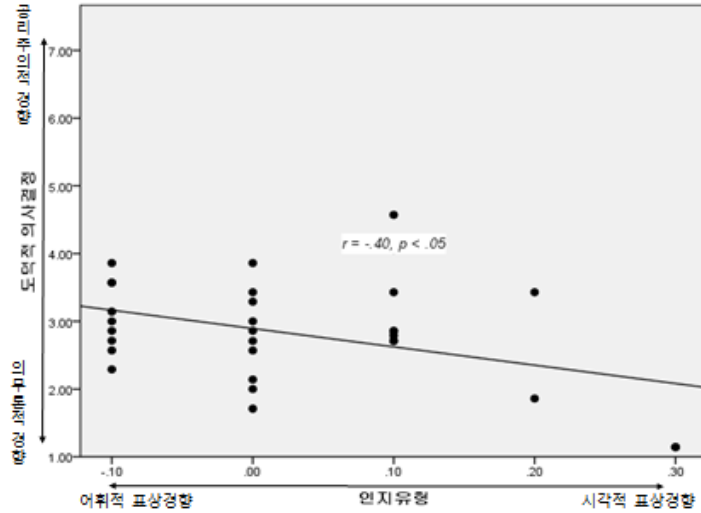


그림 2. 시각적 표상 경향과 공리주의적 결정의 상관관계.

주. 인지유형과제의 점수는 도형과제에서 도형이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되는 시행의 평균정확도에서 단어로 제시되는 시행의 평균정확도를 감산하여 산출하였음.

회표상과제보다 정확도가 더 높을수록 공리주의적 결정의 비율이 낮아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40, p < .05$ . 시각적 심상과제에서 어휘표상과제보다 더 잘한 참가자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았던 한 명의 참가자를 제외하였을 때, 시각적 심상과제와 공리주의적 결정비율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r = -.37, p = .07$ .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시각적 표상경향이 높을수록 공리주의적 결정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각적 심상과제에 응답시간이 많이 소요될수록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의 경향이 증가하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43, p < .05$ . 따라서 시각적 심상으로 표상하는 경향이 높은 개인일수록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의 경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참가자들의 윤리적 의사결정은 정치성향

(진보/보수)이나,  $r = .16, p = .44$ , 종교유무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r = -.29, p = .17$ .

## 논 의

연구 2에서는 인지유형과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의 비율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시각적 이미지의 표상이 어휘적 표상보다 더 정확할수록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의 비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시각적 이미지로 표상하는 경향이 더 높을수록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이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Amit 등, 2009; Holmes & Mathews, 2005)에서 심리적 연관성을 더 느끼고, 정서가 더 많이 활성화될 때 시각

적 이미지로 더 잘 표상된다는 결과를 보고한 것을 생각해볼 때,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인식되면서, 정서가 강하게 유발되는 상황일수록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이 적어질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 2에서는 공감수준의 개인차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유형의 개인차에 따라 참가자들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인지적,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도덕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과 인지유형의 개인차가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 1에서는 공리주의적 결정을 선호하는 집단에서 의무론적 결정을 선호하거나 개인적/비개인적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을 다르게 하는 다수 집단보다 타인조망수용의 수준이 낮았다. 또한 연구 2에서 인지유형의 개인차를 비교하였을 때, 시각적 심상의 표상을 어휘적 표상보다 선호할수록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는 능력과 정보의 시각적 표상 경향이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연구 1의 결과는 공감의 개인차와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의 관계를 보고한 Gleichgerrcht와 Young(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Gleichgerrcht와 Young(2013)의 연구에서는 공감적 염려수준이 높을수록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의 경향이 감소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타인조망수용의 능력이 높을수록 공리주의적 결정이 감소했으며, 공감적 염려수준에 있어서는 공리주의적/의무론적 의사결정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Davis(1983)가 언급한 것처럼 타인조망수용이 타인의 정서와 행동을 예측하는 인지적인 능력인 동시에 자신의 이득을 뛰어넘어 타인지향적인 정서와 연관되기 때문에 타인조망수용의 능력이 공감의 정서를 활성화시킨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도덕적 딜레마가 어떻게 제시되는지에 따라(Bartel, 2008; Conway & Gawronski, 2013; Greene et al., 2001; 2008; Waldmann, Dieterich, 2007) 또는 공감수준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Davis & Kraus, 1997; 문은옥 등, 2014)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측정방법의 차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Gleichgerrcht와 Young(2013)에서는 개인적 갈등상황에서만 공감적 염려가 공리주의적 결정과 관계가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타인조망수용과 공리주의적 결정과의 관계가 비개인적 갈등상황에서만 나타났다. 이것이 측정방법의 차이라면, 본 연구에서 정서적 공감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했기 때문에 정서적 공감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또한 Einolf(2008)가 제시한 것처럼 공감적 염려의 개인차는 도덕판단의 상황에서 자신이 심리적인 연관성을 느껴서 행하게 되는, 주로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도움행동만을 예측한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덕적 딜레마는 가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심리적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인지공감에서는 자신이 이 상황과 심리적 연관성을 어느 정도 느

끼는지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면, 정서공감은 심리적인 연관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도덕적 딜레마의 변인들(예: 개인적/비개인적, 심리적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조작하고, 공감 수준에 대한 다양한 측정기법을 활용하여 윤리적 의사결정과 인지적/정서적 공감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 2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2에서는 어휘적 표상과 시각적 심상의 표상유형에 따라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심리적 연관성을 느끼는 정도와 정서유발정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지유형의 개인차가 윤리적 갈등상황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인식하고, 공리주의적/의무론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다른 제한점으로는 연구 2에서 연구 1과 달리 개인적인 갈등상황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만을 자극재료로 사용하였던 점이다. 연구 1에서 비개인적 갈등상황에서 인지적 공감의 개인차에 따라 공리주의적/의무론적 의사결정의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적/비개인적 갈등상황에 따라 인지유형의 개인차가 윤리적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측정하고, 참가자들의 일상적인 공감의 개인차를 통계변인으로 측정하지 않은 것은 연구결과의 해석에서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리주의적/의무론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감과 인지유형의 개인차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다수의 이득을 위한 결정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공리주의적 집단에서는 공감의 두 요소 중에서 타인조망수용이 다른 집

단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생각해보는 능력이 다수의 이득을 부각시키는 공리주의적 결정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의사결정과 시각적/어휘적 정보표상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각적 표상경향이 높을수록 공리주의적 결정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은 즉각적인 정서가 활성화된다기 보다는 정서처리가 사고에 의해 지연되는 경향이 있는 개인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시각적 표상을 선호하는 개인의 경우 심리적 연관성을 더 많이 느껴 공리주의적 결정을 반대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결과는 다수의 이득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용납하는 공리주의적 결정에 타인조망수용과 시각적 심상을 통해 정서를 유발하는 것이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Greene 등(2001)의 이중처리모형에서 제안된 것처럼 어휘적 표상을 선호하는 개인들의 경우 사고과정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정서의 측면에서 타인조망수용이 낮을 경우 정서가 더 적게 활성화되어 공리주의적 경향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후속연구에서는 실험 조작을 통해 정서나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공리주의적/의무론적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sup>6)</sup>.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과 정

6) 예를 들어 Valdesolo와 DeSteno(2006)에서는 오락 프로그램을 실험 전에 시청하는 것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를 상쇄시켜 공리주의적 결정을 증가시킴을 보고하였다. 이에

서적 공감의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공리주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또는 독립적으로 각자 기능하면서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두 가지 요소 중에서 타인 조망수용의 개인차가 공리주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피해자의 입장이 스스로 되어 보면서 '우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공리주의적 결정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공감이 모두 공리주의적 결정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었으며, 타인의 불행에 대해 공감적 염려를 느끼는 것은 윤리적 의사결정에 어떤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선행연구들(Batson, Early & Salvani, 1997; Lamm, Batson & Decety, 2007)에서는 '그들'이 아닌 '우리'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 개인에게 피해자의 불행에 대해 고통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도움행동의 동기를 강하게 활성화

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Lamm 등(2007)은 참가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자신이 받게 된다고 생각하도록 했을 경우에는 피해자 그들만의 문제로 생각할 때보다 뇌의 정서연관부위(예: 편도체, 전대상피질)가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뇌영상자료는 정서와 사고가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적 염려와 타인조망수용이라는 공감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개인차를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분석하였으며,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의 정도에 따라 타인조망수용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의 경우 참가자가 사회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추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반응을 조절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참가자가 자신의 반응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정교한 연구방법(예: 피부전도반응, 뇌영상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감의 세부적인 요소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공감과 인지유형의 관계를 측정하지 않은 점이 커다란 한계점으로 남는다. 연구 1에서 타인조망수용이 높을수록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이 감소되었고, 연구 2에서는 시각적 표상을 선호할수록 공리주의적 의사결정이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후속연구에서는 공감을 정교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공감의 세부적 측면과 인지유형이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비해 Conway와 Gawronsky(2013)는 인지부하와 정서유발의 영향을 비교분석했을 때, 인지부하는 공리주의적 결정의 감소에 영향을 주었지만, 의무론적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사진을 통한 정서유발은 의무론적 결정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지만, 공리주의적 결정이 감소되지는 않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Conway와 Gawronsky(2013)는 Greene 등(2001; 2008)의 이중처리모형에서 제안한 것처럼 정서와 사고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정서의 증가는 곧 사고의 감소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결정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사고과정은 공리주의적 결정에만, 정서과정은 의무론적 결정에만 영향을 준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중처리모형에서 제시한 것처럼 공리주의적/의무론적 결정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양극단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Jacoby(1991)의 처리해리모형에 따라 각각 다른 수식을 기초로 산출할 것을 제안했다.



### 참고문헌

- 김성희, 방희정 (2008). 애착, 관계적 자아 및 도덕성 간의 관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 137-152.
- 문은옥, 김혜리, 천영운, 김태화, 최현옥 (2014). 품행문제 청소년의 공감손상: 인지공감의 손상인가 정서공감의 손상인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 127-146.
- 박서연, 박성연 (2012).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문화성향에 따른 지인 및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 85-106.
- 이민우, 설선희, 김학진 (2014). 도덕적 딜레마에서의 판단경향성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 201-223.
- 이재호, 조공호 (2014). 정치성향에 따른 도덕 판단기준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 1-26.
- 정명숙 (2002).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 113-127.
- 정은경 (2013). 누가 결과주의적 결정을 내리는가? 권력이 윤리적/정책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 489-509.
- 조공호, 김지용, 홍미화, 김지현 (2002). 문화성향과 공감 및 고독의 수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 15-34.
- 하영희, 김경연 (2003).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 행동과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간의 인과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 17-30.
- Amit, E., Algom, D., & Trope, Y. (2009). Distance-dependent processing of pictures and word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8, 400-415.
- Amit, E., & Greene, J. D. (2012). You see, the ends don't justify the means: Visual imagery and moral judgement. *Psychological Science*, 23, 861-868.
- Amit E., Gottlieb S., & Greene J. D. (2014). Visual versus Verbal Thinking and Dual-Process Moral Cognition. In: J. W. Sherman, B. Gawronski, & Y. Trope (Eds.) *Dual-Process Theories of the Social Mind* (pp. 340-354). New York London: The Guilford Press.
- Aquino, K., & Reed, A. I. I. (2002). The self-importance of moral ident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423-1440.
- Bartels, D. M. (2008). Principled moral sentiment and the flexibility of moral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Cognition*, 108, 381-417.
- Bartels, D. M., & Pizzaro, D. A. (2011). The mismeasure of morals: Antisocial personality traits predict utilitarian responses to moral dilemmas. *Cognition*, 121, 154-161.
- Batson, C. D., Early, S., & Salvarani, G. (1997). Perspective taking: Imagining how another feels versus imagining how you would fe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751-758.
- Carney, D. R. & Mason, M. F. (2010). Moral decisions and testosterone: When the ends justify the mea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668-671.
- Conway, P., & Gawronski, B. (2013). Deontological and utilitarian inclination in moral decision making: A process dissociation

-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 216-235.
- Cummins, D. D., & Cummins, R. C. (2012). Emotion and deliberative reasoning in moral judgement. *Frontiers in Psychology*, 3, 1-16.
- Cushman, F., Young, L., & Hauser, M. (2006). The role of conscious reasoning and intuition in moral judgment: Testing three principles of harm. *Psychological science*, 17, 1082-1089.
- Cushman, F. A., & Greene, J. D. (2012). Finding faults: How moral dilemmas reveal cognitive structure. *Social Neuroscience*, 7, 269-279.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Einolf, C. J. (2008). Empathic concern and prosocial behaviors: A test of experimental results using survey data. *Social Science Research*, 37, 1267-1279.
- Eskine, K. J., Kaciniak, N. A., & Prinz, J. J. (2011). A bad taste in the mouth: Gustatory disgust influences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Science*, 22, 295-299.
- Epstein, S., Pacini, M., Denes-Raj, V., & Heier, H. (1996). Individual differences in intuitive-experiential and analytical-rational thinking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2, 22-37.
- Gleichgerricht, E., & Young, L. (2013). Low levels of empathic concern predict utilitarian moral judgment. *PLOS ONE*, 8, 1-9.
- Greene, J. D. (2015). The rise of moral cognition. *Cognition*, 135, 39-42.
- Greene, J. D. (2011). Emotion and morality: A tasting menu. *Emotion Review*, 3, 1-3.
- Greene, J. D. (2007). Why are VMPFC patients more utilitarian? A dual-process theory of moral judgment explain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 322-323.
- Greene, J. D., Sommerville, R. B., Nystrom, L. E., Darley, J. M., & Cohen, J. D. (2001). An fMRI investigation of emotional engagement in moral judgment. *Science*, 293, 2105-2108.
- Greene, J. D., Morelli, S. A., Lowenberg, K., Nystrom, L. E., & Cohen, J. D. (2008). Cognitive load selectively interferes with utilitarian moral judgment. *Cognition*, 107, 1144-1154.
-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 814-834.
- Hofmann, W., & Baumert, A. (2010). Immediate affect as a basis for intuitive moral judgment: An adaptation of the affect misattribution procedure. *Cognition & Emotion*, 24, 522-535.
- Holmes, E. A., & Mathews, A. (2005). Mental imagery and emotion: A special relationship? *Emotion*, 5, 489-497.
- Holmes, E. A., Mathews, A., Mackintosh, B., & Dalgleish, T. (2008). The causal effect of mental imagery on emotion assessed using picture-word cues. *Emotion*, 8, 395-409.
- Jacoby, L. L. (1991). A process dissociation framework: Separating automatic from intentional uses of memory.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0, 513-541.
- Kensinger, E. A., & Schacter, D. L. (2006). Processing emotional pictures and words:

- Effects of valence and arousal. *Cognitive, Affective, & Behavioral Neuroscience*, 6, 110-126.
- Koenigs, M., Young, L., Adolphs, R., Tranel, D., Cushman, F., Hauser, M., & Damasio, A. (2007). Damage to the prefrontal cortex increases utilitarian moral judgements. *Nature*, 446, 908-911.
- Kraemer, D. M., Rosenberg, L. M., & Thompson-Schill, S. L. (2009). The neural correlates of visual and verbal cognitive style. *Journal of Neuroscience*, 29, 3792-3798.
- Kozhevnikov, M. (2007). Cognitive styles in the context of modern psychology: Toward an integrated framework of cognitive style. *Psychological Bulletin*, 133, 464-481.
- Lamm, C., Batson, C. D., & Decety, J. (2007). The neural substrate of human empathy; Effects of perspective-taking and cognitive appraisal.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9, 42-58.
- Messik, S. (1976). Personality consistencies in cognition and creativity. In S. Messick (Ed.), *Individuality in learning* (pp.4-23). San Francisco: Jossey-Bass.
- Moore, A. B., Clark, B. A., & Kane, M. J. (2008). Who shalt not kill? Individual differences in working memory capacity, executive control, and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Science*, 19, 549-557.
- Pask, G. (1972). A fresh look at cognition and the individual. *International Journal of Man-Machine Studies*, 4, 211-216.
- Payne, B. K. (2001). Prejudice and perception: The role of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 misperceiving a weap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181-192.
- Payne, B. K. (2006). Weapon bias: Split second decisions and unintended stereotyp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5, 287-291.
- Prinz, J. (2006). The emotional basis of moral judgments. *Philosophical Explorations*, 9, 29-43.
- Richardson, A. (1977). Verbalizer-visualizer, a cognitive style dimension. *Journal of mental imagery*, 1, 109-126.
- Schnall, S., Haidt, J., Clore, G. L., & Jordan, A. H. (2008). Disgust as embodied moral judg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1096-1109.
- Schneider W, Eschmann A, Zuccolotto A. (2002). E-Prime user's guide. Psychology Software Tools, Inc.; Pittsburgh, PA.
- Shariff, A. F., Greene, J. D., Karremans, J. C., Luguri, J. B., Clark, C. J., Schooler, J. W., Baumeister, R. F., & Vohs, K. D. (2014). Free will and punishment: A mechanistic view of human nature reduces retribution. *Psychological Science*, in press.
- Sontag, S. (2003).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Hamish Hamilton, Ltd: London.
- Trope, Y., & Liberman, N. (2010). Construal level theory of psychological distance. *Psychological Review*, 117, 440-463.
- Unsworth, N., Heitz, R. P., Schrock, J. C., & Engle, R. W. (2005). An automated version of the operation span task. *Behavior Research Methods*, 37, 498-505.
- Valdesolo, P., & DeSteno, D. (2006). Manipulations of emotional context shape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Science*, 17, 476-477.
- Waldmann, M. R., & Dieterich, J. H. (2007).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Throwing a bomb on a person versus  
throwing a person on a bomb: Intervention  
Myopia in moral intuitions. *Psychological Science*,  
18, 247-253.

1차원고접수 : 2015. 04. 24.

수정원고접수 : 2015. 06. 09.

최종게재결정 : 2015. 08. 25.

## Emotional and cognitive response to the pain of others: Perspective taking and cognitive style

Hong Im Shin

Yeungnam University

Recent work in moral psychology is focused on questions about utilitarianism (i.e., saving more people's lives) and deontology (i.e., disapproving of sacrificing one person for the greater good of others). This study aimed to answer two questions. First, which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and cognitive processes have a critical impact on utilitarian and deontological judgments? Second, do cognitive styles facilitate a specific moral judgment? In Study 1, various moral dilemma scenarios were presented and the participants had to indicate how morally appropriate it would be for them to kill one person to save others. In addition, they completed a self-report questionnaire regarding empathic concern, perspective-taking, need for cognition and moral identity. The results revealed that participants with preferences for utilitarian judgments showed lower perspective-taking than other participants. In Study 2, the findings revealed the relationship between verbalizer-visualizer cognitive styles and utilitarian judgments. The visualizer cognitive styles showed reduced utilitarian judgments. These results implicated the possibility that reduced empathy (i.e. perspective taking) and the verbalizer cognitive style regulated the automatic emotional process and resulted in increased utilitarian judgements. Finall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work were discussed.

*Key words* : utilitarian, deontology, perspective taking, cognitive style

## 부록. 연구 1과 연구 2에서 사용된 윤리적 갈등상황

### 1) 비개인적 윤리적 갈등상황

당신은 현재 고속버스를 몰고 있는 운전사입니다. 그런데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열 명의 승객을 실은 버스에 충돌하기 직전입니다. 옆쪽을 바라보니, 다른 쪽에는 한 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가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열 명의 승객을 구하기 위해 버스의 방향을 돌리시겠습니까?

(적절하면 '네', 적절하지 않다면 '아니오')

당신은 현재 고속열차를 몰고 있는 기관사입니다. 그런데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선로 앞쪽에는 인부 다섯 명이 일하고 있어서, 기차가 계속 직진한다면 인부 다섯 명은 죽게 됩니다. 선로 옆쪽을 바라보니, 다른 쪽 선로에는 한 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다섯 명의 인부들을 구하기 위해 스위치를 눌러 열차의 방향을 돌리시겠습니까?

(적절하면 '네', 적절하지 않다면 '아니오')

당신은 지금 병원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독가스가 환풍기고장으로 인해 세 명의 환자가 있는 병실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 옆방에는 환자 한 명이 있는 병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만히 있게 되면 세 명의 환자는 죽게 됩니다. 당신은 스위치를 눌러 환자 한 명이 있는 병실쪽으로 독가스의 통기방향을 바꾸시겠습니까?

(적절하면 '네', 적절하지 않다면 '아니오')

### 2) 개인적 윤리적 갈등상황

레스토랑에서 폭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폭탄은 레스토랑에 있는 열 명의 손님을 살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손님이 당신의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손님을 폭탄위로 던져서, 다른 남은 사람들을 구조하시겠습니까?

(적절하면 '네', 적절하지 않다면 '아니오')

당신은 종합병원 의사입니다. 당신의 환자 다섯 명은 희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장기가 새로 이식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병원에 방문한 건강한

방문객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사람의 장기를 당신의 환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방문객을 죽이겠습니까?

(적절하면 '네', 적절하지 않다면 '아니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적군을 피해 건물 지하실에 숨어 있습니다. 건물밖에서는 적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당신의 갓난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이의 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당신과 다른 주민들은 모두 발각되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입을 막게 되면 아이는 질식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과 다른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이를 질식하게 하겠습니까?

(적절하면 '네', 적절하지 않다면 '아니오')